

## 지역 소식통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위, 225건 심의 의결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위원장 이동준)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과 23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사업 총 2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 앞서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각각 시민위원 13~14명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3개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현지 확인과 검토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평정을 통해 결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김개남 장군 추모제

정읍시가 김개남 장군 순국 126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신의연면 등곡리 김개남 장군 묘역에서 김개남 장군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김개남 장군의 사상과 애국정신을 후세에 보전하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제는 유진섭 시장과 김개남 장군 후손,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단체, 지역주민 등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원 밀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추모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유진섭 시장의 주모자, 조한·아현·종현의 제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분향으로 추모제의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신성장동력 확보 최선”

권익현 부안군수, ‘공감의 날’ 양질의 사업발굴 강조  
겨울철 철저한 자연재난 대비 제설자재 확충 등 언급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9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11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를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미루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잘 분석해 부안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해 일자리가 창출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을 여름 지속적인 장마와 태풍 등 기상야변으로 인해 겨울에도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및 한파가 우려된다”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 확충·취약구간 충점 관리 긴급 교통봉제, 유관기관 협조체

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 대비 및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추진할 때 같은 목표 아래 직원간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선배공직자가 멘토로서 격의 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성과를 이뤄갈 때 우리는 우리만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생동하는 부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감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2개월 여 만에 개최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친 맘 달랜’ 가을밤 힐링영화제 막 내려

###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 성료

고창에서 #영화 #보리’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 1일 그 성대한 막을 내렸다.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티이틀을 가지고 있는 고창농촌영화제는 지난 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 이들을 위한 기쁨을 힐링영화제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그린카페 입장식에선 영화계 초청 게스트들과 농촌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나란히 그린카페 위를 걸으며, 농촌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부각 시켰다. 또 드라이브 시네마는 그간 맘 놓고 극장 외출을 하지 못했던 많은 기독·연인·친구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며 전 좌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이뤄냈다.

무비토크·힐링시네마에선 영화 ‘나는 보리’ 김진우 감독과 봉민대 감독이 제작 넘치는 일睹과 교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핍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했다.

폐막식에선 높을고창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낸 메이드인 고창 작품 2편을 폐막작으로 상영했고 농촌 3분 영화제 수상작들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생명문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한발 한발 내

딛는 지금의 영화제가 앞으로 30회, 100회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우리나라 대표 농촌영화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폐막인사를 전했다.

진기영 영화제조직위원장은 ‘비록 코로나19 속에서 조촐하게 진행되었지만, 위기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티이틀을 가지고 있는 고창농촌영화제는 지난 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열렸다

### 고창군장학재단 후원회 홍보단 발족… ‘인재키우기’ 본격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유기상)이 지난달 30일 후원회 홍보단을 발족하고 인재키우기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재단 후원회 홍보단은 지역 인재양성에 열의를 가진 28명의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됐다.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와 장학사

업을 홍보하는 등 지난 5월에 발족한 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장학재단의 활동을 돋보이게 된다.

유기상 이사장은 “홍보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식 농사 잘 짓고 사람 잘 키우는 군의 뜻이 널리 알려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군의 미래도 더 많은 가능성으로

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1998년 설립돼 서울, 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하계 과학캠프 및 명문대학 진로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정학생 선발기준(성적우수 정학생, 특기장학생)에 ‘농생명식품 인재육성’ 정학생을 추가해 미래 고창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업을 홍보하는 등 지난 5월에 발족한 후원회 운영위원회와 함께 장학재단의 활동을 돋보이게 된다.

유기상 이사장은 “홍보단의 다양화된 활동을 통해 자식 농사 잘 짓고 사람 잘 키우는 군의 뜻이 널리 알려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군의 미래도 더 많은 가능성으로

위한 희망 노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읍시민의 장은 문화장에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62) 이사장 새미울강에 전 정읍시 새마을회장 권동임(70) 회장, 산업장에 주두순푸드 구성규(60) 대표이사, 애향장에 주한양컨트리클럽 이승호(76)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정읍의 빛나는 역사를 기리며 화향(花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인향(人香)의 도시, 바로 정향(井香)의 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유진섭 정읍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유진섭 시장이 지역발전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이원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임오경 국회의원(문체위)을 만나 면담했다.

유 시장은 면담에서 지역 혁신 사업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원숙 과방위위원장에게 상임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과방위 소관 사업인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기 구축(10억) 사업과 백신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10억) 사업을 상임위 단체에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 임오경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정읍=김대환 기자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